

<2020년 3월 16일 휴거와 생명의 날 말씀>

하나님 사랑의 역사

본 문 요한복음 3장 16절

◎ 해마다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
〈귀한 역사의 날〉이 또 돌아와 맞게 되었습니다.

섭리의 각 나라와 교회와 개인 모두는
이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.

◎ 오늘은 ‘〈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날〉을 기념하는 날’로서
이날이 되면 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,

올해는 시대에 따라 ‘각 개인의 위치’에서
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.

<말씀 시작>

1. 〈요한복음 3장 16절〉 말씀은 성경 31,062절 가운데 가장 ‘중심이 되는 말씀’이다. 이 말씀은 〈3월 16일〉과 같이 의미가 있다.
2. 〈사랑의 근본〉이 무엇이나. ‘하나님이 〈사랑하는 자〉를 이 세상에 보내준 것’이 사랑의 표상이며, 표적이며, 근거다.

3. 하나님이 <사랑하는 자>를 보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말을 믿고,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‘육’도 잘 되고 ‘영’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.
4. <하나님의 사랑의 실존체>가 바로 보이는 ‘예수님’이다.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 때는 ‘선지자’, 왕 때는 ‘왕’을 보내서 <사랑의 실존체>를 보여주셨다.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셨다. 이것이 <표상의 말씀>으로서 구약역사 4천년, 신약역사 2천년 동안 기다렸던 <희망의 말씀>이다. 지금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계속 하고 있다.
5. <새로운 시대>는 새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하신다. 회사도 때가 되면 다시 만들어서 하듯 그러하다. <새로운 시대>가 오니,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새로운 기업으로 ‘새 역사’를 하셨다.

◎ 오늘 말씀의 주제는 <하나님 사랑의 역사>입니다.

이 말씀은 오늘 새벽부터 단상에 오기 전까지 준비한 말씀입니다. 지금까지 준비한 말씀을 성령과 함께 잘 전해주겠습니다.

◎ 오늘은 크게 <두 가지>로 말씀하겠습니다.

그동안 여러분들이 ‘하나님’에 대해, ‘우리 삶’에 대해 궁금해 하던 것들을 받아 왔으니, 잘 듣기 바랍니다.

◎ 먼저, 하나님은 <사랑의 역사>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말씀해주겠습니다.

6. 성경에는 <택한 큰 자들>이 있다. 선지자들, 시대의 왕들, 혹은 중심인물들이 그러한 자들이다. 이들을 보면, ‘때’를 보고 나게 하시고, 기르시고, 그때에 맞춰 쓰신다. 이 말씀은 주와 섭리의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.
7. <때>에 맞춰 쓰기 때문에, 하나님은 꼭 ‘그 때’에 나게 하시고, ‘그 때’에 가르치시고, ‘그 때’가 넘어가기 전에 쓰신다.
8. 하나님은 <시작>을 정확하게 하신다. 운동 경기할 때도 <출발선>만큼은 정확하게 지키듯, 하나님도 시작만큼은 정확하게 하신다. 고로 하나님은 ‘하나님이 보낸 사역자’를 <정확한 때>에 낳게 하시고, 출발하게 하시고, 가르쳐서, 제때에 맞춰 행하신다.
9. <하나님의 시작>은 ‘사명자를 쓸 때’부터가 아니다. 그 때는 늦어서 안 된다. 하나님이 메시아나 선지자나 중심인물을 선택할 때는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, 즉 ‘3대 전’부터 택하신다.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러했다.
10. 선생도 하나님이 ‘아버지 때’부터 역사하셨다면, 시간적으로 안 됐다.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한다고 알았어도, 늦었다. 고로 하나님은 ‘할아버지 때’부터 역사하셔서 이 골짜기, 지금의 <월명동>에서 살게 하셨다.
11. <선생의 할아버지>는 ‘높은 직’을 갖고 있었기에, ‘월명동과 같은 골짜기’에 올 필요가 없었다. 이와 같은 골짜기는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다. 그러나 <하나님>께서 강권적으로 ‘시대와 민족’을 틀어서 오게 하셨다. <하나님이 선택한 자>는 ‘낳는

장소'가 정해져있기에 그러하다. '그 택한 장소'에서 하나님의 궁을 만들고 역사를 펴야 한다.

고로 하나님은 <선생의 할아버지 때> 시대가 난국을 맞게 하였고, 원래는 '공주'가 고향인데 이곳 '월명동' 골짜기로 도망쳐 오게 했다. 그리고 이곳에서 아버지를 낳게 하셨다.

12. 할아버지도, 아버지도, 선생도 '이 골짜기'를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.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도, 못나가게 됐다. <하나님>이 꼭 잡아두신 것이다.

13. 선생의 형제들과 여동생,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이 골짜기를 다 나가고, '선생 혼자'만 남았다. <하나님>이 '중심이 되는 사람'만 잡아놓은 것이다. 결국 이 골짜기에 있으면서 <말씀>을 다 배우고 <뜻>을 알았다.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1978년부터 지금까지 42년 동안 섭리역사를 펴왔다.

14. 선생이 말씀을 받고 <세상>에 나가서 복음을 펴니 너무 좋았다. 실 가닥 같이 좁은 <산골짜기>에 살다가, <서울>로 오니 희망과 충격의 세계였다. 먹을 것이 없어도, 입을 것도 없어도 좋았다. 그런데 한 가지 '내 집, 내 마당, 내가 먹고 살 곳'이 없으니 힘들었다. 그래서 <삼각산>에 가서 비닐을 뒤집어쓰고 살았다. 1년 반 동안 넘어지지 않고 살았으니, <대단한 정신과 사상>이었다. '그렇게 30년을 산속에 살고, 내가 또 산에 들어가야 하나. 그래도 집을 잡을 때까지는 산속이 낫다.'고 생각했다.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잡아준 것이다. 마치 한 아름 되는 돌이 있는데, 세우면 넘어가니 항상 잡아주듯 그렇게 잡아주셨다.

15. 그 후 다시 이 골짜기에 와서 <하나님의 성전>을 짓기 시작했다. 형제들에게 이곳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, “거기다 뭘 짓는다는 말이나. 너도 살아봐서 알지 않냐. 따르는 교인들이 고생하겠다. 이왕이면 좋은 곳에 하지, 그 골짜기에 성전을 짓다니.” 했다.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환경이 좋은 <다른 곳>을 추천해주어 보러 갔더니, 하나님께서는 “양들은 높은 데서 못 산다. 푸른 잔디 있는 평지에 지어야 한다.” 했다. 그래서 <다른 곳>을 주어도 받지 않았다. 내가 하도 싫어하니,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한 것이다.

따르는 제자들은 “이 골짜기 좋아요. 이곳에 계속 살아도 좋겠는데요? <선생님이 태어난 곳>이니, 좋으나 나쁘나 해야 되는 거예요.” 했다. 성자도 말씀하시길 “예수님도 <자기 난 곳>, ‘나사렛’ 에서 역사를 펴지 않았냐. 그와 같다.” 하셨다.

결국은 <하나님의 성전>을 만들어 놓으니, 세상의 아무리 좋은 곳을 개발해서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.

16. 하나님은 <3대>에 걸쳐서 행하신다. 구약은 ‘할아버지 때’, 신약은 ‘아버지 때’ 같은 시대다.

17. 하나님이 아버지 때 <자녀권 사랑>을 해주시면서 계속 돌보고 기르시며 행하게 하셨고, 그 가운데 선생을 낳았다.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<애인> 같이 길러주셨다. 기도하러 산에 가면 잘 놀고 좋아하고, 성경도 보며 잘 물어보고, 그렇게 20년 동안 ‘극적인 수도생활’ 을 하며 컸다.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부터 <애인>같이 해주셨다.

18. 완전히 뒤집어져야, <온전한 사람>이 된다. 선생이 완전히 뒤집

어졌을 때부터 예수님과 <애인> 사이가 되었다.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예수님의 옷이 다 헤져있고, 열심히 기도하면 옷이 깨끗해져있었다.

선생이 수도생활 17년째에, ‘내가 목사나 전도사도 아니고, 아무 사명도 없는데, 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기도하며 산속에서 사는지 모르겠다.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아닌데. 그만해야겠다.’ 하고 생각했을 때, 예수님이 나타나서 “네가 안 한다는데 어떡하겠냐.” 했다.

그때 서약한 것이 생각나 다시금 기도를 하니,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서 기분 좋게 대해주셨다. 그래서 다시 기도생활을 시작했다. 이렇게 <애인>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성약 역사를 펴오셨다.

19. <새로운 역사>는 ‘새로운 말씀’ 이 있어야 한다. 곧 ‘세상을 뒤집는 말씀’ 이다. 이 말씀은 ‘하나님의 말씀’ 이니, 말 한 그대로 이루어진다. 선생이 42년 동안 할 때, ‘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’ 그대로 하셨다.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고 전해주는 것, 그것만이 <온전한 역사>이다. 지금 섭리사 모두도 겪고 있다.

20. 섭리사 모두 이 시대에 온 것은 <할아버지 때>부터 역사하고, <아버지 때> 더 역사하고, <지금> 와서는 본격적인 역사를 하고 있다. 확대시키면 <구약, 신약, 성약>이고, 축소시키면 <할아버지 때, 아버지 때, 여러분 때>이다. 이렇게 해서 ‘마지막 때’ 를 멋있게 매듭짓는다.

21. 선생이 하나님께 “모든 존재물이 오래 가면 퇴폐하기 쉽고, 지구에도 각종 이변과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있는데, 이 <지구 역

사>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?” 하고 물으니, 하나님께서는 “나 여호와가 중지시키지 않는 한, 지구는 계속 유지된다. 중지하면, 그때는 지구 역사가 끝나느니라.” 하셨다.

22. 그리고 또 묻기를 “<천년 역사>가 끝나고도 지구 역사를 계속 하십니까?” 했다. 그리고는 대답을 안 하셨다. 과거부터 온 것을 생각해보니, 이는 마치 ‘구약역사 4000년이 끝나면 또 할까?’, ‘신약역사 2000년이 끝나면 또 역사를 펼까?’ 하는 생각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. 그리고 또 ‘이렇게 엄청난 우주와 천지만물을 만들어놓고 끝내지 않으시겠다. 농사도 한 번 농사짓고 끝내지 않고, 논을 밭으로 바꾸든지, 특수작물로 바꾸어서 또 하듯, 또 하시겠구나.’ 깨달아졌다.

23. <3월 16일>은 ‘남녀가 <결혼>한 날을 기념하는 날’ 과 같다.

24. 모든 사람들은 ‘목적 없이’ 태어난 인생들이다. <자기>가 ‘목적과 뜻’ 이 있어 태어난 것이 아니다. <하나님>이 ‘목적’ 을 가지고 낳았으니,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그 목적을 이룬다.

25. (하나님) 천지만물 창조한 나 여호와가 <인간을 낳은 목적>이 있으니, 이것이 곧 ‘창조목적’ 이다. 목적 없이 나왔으니, <하나님의 목적>을 이루어야 될 인생들이 아니냐. <그 목적>을 이룸이 합당하니라.

26. <하나님의 목적>을 이루었으니, ‘하나님’ 도 좋고 ‘나’ 도 좋다. 영계에 가서도 하늘나라 <황금 천국>을 상속받고 영원히 기

빠하며 산다.

27. 선생이 하나님께 “제가 은혜를 갚고 싶는데, 어떻게 하면 될까요?” 하고 물으니, 하나님께서 “사랑이 목적이니, 사랑하면 된다. 사랑 변하지 말아라. 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사는 낙을 누려라.” 하셨다.
28. 성경에 “그날에 그리스도를 맞고 휴거된다.” 고 했다. <예수님>이 땅에 왔을 때,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<자녀권의 휴거>를 이루었다. <이 시대 휴거>는 맨 ‘마지막 사랑’ 으로 된다. <하나님의 사명자>를 만나 일체되어 같이 살고, 그를 통해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사랑하며 ‘사랑의 대상’ 이 되어 살 때 이루어진다. 이는 ‘자녀의 차원’ 을 넘어, 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며 ‘신부로서 사랑하는 삶’ 이다.
29. <휴거 날>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주체로 삼고 ‘결혼식’ 을 하는 날과 같다. 그 후에는 ‘사랑의 삶’ 이다. 각자 차원대로 더 멋있게 살고, 이상적으로 좋아하며 사는 것이다.
30. <사랑>도 ‘알아야’ 좋아한다. <수석>도 알아야 좋아하고, <땅>도 알아야 좋아하고. <건물>도 세밀히 아는 자가 알고 좋아하듯이, <사랑>도 얼마나 크고 좋은지 알아야 좋아한다.
31. 하나님은 마지막 최고로 좋은 하늘나라를 <황금 천국>으로 표현하셨다. 이 세계는 ‘사랑의 완성’ 을 이룬 자들만 가는, <더 이상 없는 세계>니라.

32. <구약>은 ‘성장하는 기간’ , <신약>은 ‘사귀는 기간’ , 성약은 ‘결혼한 기간’ 이다. 그러니 항상 <사랑>을 잊지 말고,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며 살아라.
33. <예수님이 살아있을 때>만 구원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. <예수님이 죽은 뒤>에도 구원역사는 일어났다. 그러나 ‘주인공’ 이 죽었으니 같이는 못 이뤘다. 결혼한 남자가 있을 때는 같이 사랑하고, 죽으면 혼자 사랑하며 사는 것과 같다. 이와 같이 <휴거 역사>도 천년 동안 역사를 펴는데, <보낸 자가 죽은 뒤>에는 그의 ‘육신’ 없이 천년 동안 간다.
34. <휴거>는 꼭 ‘정한 날’에만 되는 것이 아니다. <결혼식 전>에도 같이 좋아하고 연애하며 살면, 사랑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.
35. <휴거>는 평소에 늘 성장하면서 날마다 더 좋게 이루어지고 있다. 그러니 <휴거가 안 된 자들>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고 배우면, ‘사랑의 대상’ 이 된다. 마치 어린아이가 다 커서 결혼하듯, 성장하며 ‘완성’ 되었을 때 휴거 되어 <하늘나라>에 간다.
36. 하나님은 <보낸 자의 육신>을 통해 계속 하시다가, 그 <육신>이 떠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떠나신다. 육신 쓸 사람이 없으니, 때가 되면 간다. 그의 육신을 쓰고 하다가, 떠나면 그의 <영>을 쓰고 한다.
37. 우리는 목적 없이 태어났지만, 목적은 하나님이 있으니, <하나님

의 목적>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. <우리>는 ‘하나님 사랑’ , <하나님>은 ‘우리 사랑’ 이다. 이것을 육신 일생, 영 영원토록 하자.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‘절대적인 사랑의 대상’ 이 되어 사는 것이 <휴거>다.

38. <휴거>를 이루었을지라도, ‘잘 살아야’ 한다. 이혼하면, 못 산다. 이제 ‘잘 사는 것’ 만 남아있다.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잘 하기에 달려있다. <사랑하는 차원>대로 계속 ‘이상적인 사랑의 차원’ 이 높아지니, 꼭 그렇게 하라.

39. 선생이 하나님께 “모르는 사람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죠?” 물으니, 하나님께서는 “나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. 나는 <모르는 사람>에게는 아예 일을 맡기지 않는다. 귀한 것을 모르면 하나님 모임에 참석도 안 시키고, 모르는 사람에게는 임무도 안 준다.” 하셨다.